



4면

전북교육, 대학과 함께 미래 연다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음 5월 15일) 제37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데이터로 도시문제 해결

도, 전국 최초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클라우드 구축  
도내 14개 시군 공동 활용... 스마트도시 확산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가 9일 전국 최초로 도내 14개 시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광역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며 스마트도시 확산 기반을 본격 마련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는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군별로 흩어져 있던 교통·안전·환경·시설물 등 도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이를 표준화해 행정 및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 솔루션

이 타지역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오픈소스 기반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고 광역 데이터허브와의 연계를 의무화하는 한편, 광역 자치단체에 데이터허브를 보급해왔다. 전북자치도는 이 시스템을 카카오프로에 구축했으며, 도시재난 예방 서비스와 안전시설물 관리서비스 등 2종의 시범 서비스를 우선 구현했다. 특히 올해 군산시가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선

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데이터허브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도는 데이터 활용 고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시데이터의 종류와 연계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도 시군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데이터허브 구축은 단순한 정보통신 시스템이 아니라 우수한 스마트 솔루션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어 전북형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첫 단계"라며 "도시문제를 데이터로 진단하고 해결해 도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사랑도민증 아세요?... 도, 축제·관광지서 현장 홍보

산골영화제 등서 부스 운영  
청년·군장병·관광객 등  
정책별 타깃 맞춤 전략 병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를 위해 축제 현장과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올 상반기 남원 춘향제, 고창 청보리축제, 무주 산골영화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와 연계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도민증의 혜택을 알리고 신청을 유도해왔다. 전주한옥마을에서도 수시로 부스를 열어 현장 발급을 돕는 등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무주 산골영화제 기간에는 무주 지역 가맹점 정보와 혜택을 현장에서 함께 안내해 영화제 방문객들의 지역 내 소비와 체류를 유도하는 데 집중했다. 도는 "관광지에서 얻은 감동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체험형 홍보"라며 "이후 재방문과 장기적 충성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대상 홍보, 청년층을 겨냥한 모뎀장병 대상 홍보 등 정책별 타깃에 따른 맞춤 전략도 병행하고 있으며, 도내 군부대인 35사단,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를 위해 축제 현장과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무주 산골영화제 기간동안 펼친 전북사랑도민증 현장 홍보.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부사관학교 등에도 방문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초 4,500명 수준이던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 수는 5월 기준 2만4,000명을 넘어섰으며 5배 이상 증가했다. 가맹점도 31곳이 추가돼 총 99곳에서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도민증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고, 도내 축제·박람회·문화행사 등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체험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전북사랑도민증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전북 외 거주자들과 전북이 관계를 맺고 이어주는 유대의 매개체"라며 "관광·문화·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 가까이 도민증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출향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향후 수도권 등 타지역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9일 무주를 당산리 일원에서 열린 무주군립요양병원 개원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황인홍 무주군수 등 참석자들이 전북 동부권 최초의 공립요양병원 개원을 축하하며 테이프 컷팅을 마치고 있다.

## 무주군립요양병원 개원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36개 병실·125병상·무주 최초 인공신장실 갖춰  
노인성 질환·치매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무주군립요양병원이 9일 개원했다. 이날 오후 3시 병원 주차장에서 개최된 개원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유관 기관 관계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시작을 함께 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0년부터 5개년에 걸쳐 진행된 무주군립요양병원 조성 사업에는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총사업비 241억원이 투입됐다. 건물은 연면적 5,129㎡ 규모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조성됐으며 총 36개 병실에 125병상을 갖췄다.

진료동과 병동으로 구분된 시설에는 외래진료실과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일반병동(1~2층, 84병상), 치매전문병동(3층 42병상), 프로그램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사)소산이 위탁·운영을 맡은 무주군립요양병원에는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하며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 진료에 주력한다. 이 외 외과적 수술 후 재활, 한방, 치매 관련 진료 등도 가능해 통합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신장실은 무주군 최초로

설로 환자 12명이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갖췄다. 무주군은 '2025년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보건복지부로부터 1차년도에 1억5,000만원, 2차년도 이후에는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치료와 돌봄, 재활을 통합한 지역 밀착형 의료·복지 거점인 군립요양원은 경제적·사회적 필수 안전망"이라며 "군립요양병원을 기반으로 군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문 의료 환경을 조성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 본격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에너지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냉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등유바우처가 에너지바우처에 포함됐으며, 바우처 사용기간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지원 단가는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5,200원(하절기 40,7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하절기 5만8,8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하절기 7만5,8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하절기 10만2,000원)이 차등 지원된다.

/이만호 기자

**순창군**

아이들의 물놀이 천국

# 순창강천힐링스파

다양한 건강체험, 온천치유 누리실, 스파체험 등  
이제 새로운 순창을 경험해보세요

HEAL FROM WATER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681 강천힐링스파